

현장시선



송 규 진
제주YMCA 사무총장

최근 제주도가 전국 유일의 ‘렌터카 총량제’를 2028년 9월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며, 2018년 첫 시행 이후 벌써 다섯 번째 연장을 맞이했다. 도입 초기만 해도 한정된 도로 용량에 따른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과당 경쟁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은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깊은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시행 8년 차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이 제도가 과연 당초 목표했던 ‘적정 대수 유지’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 볼 때가 됐다.

렌터카 총량제, 기득권 보호막 넘어 모빌리티 혁신으로

가장 뼈아픈 대목은 ‘감차의 역설’이다. 수급조절위원회가 산정한 제주도 내 렌터카 적정 규모는 2만 8499대지만, 올해 9월 기준 실제 등록 대수는 이를 1283대 초과한 2만 9782대에 달한다. 도입 초기 11%가량 차량이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으나, 2020년 강제 감차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 이후 자율 감차로 전환되면서 동력을 잃었다. 최근 2년간 줄어든 렌터카가 3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현재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제도가 기존 렌터카 업체들의 ‘기득권 지키기용 방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차단되면서 건전한 경쟁도 사라졌다. 교통 수용력을 명분으로 시장의 문은 닫았지만, 정작 기존 업체는 몸집을 줄이지 않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 경쟁이 사라진 시장은 서비스 질 저하와 성수기 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단순히 ‘숫자 무기’에 급급한 낡은 패러다임을 버리고, 렌터카 총량제 운영을 혁신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네 가지 해법이 필요하다.

첫째, 공항 셔틀버스 보조금 지원이나 차고지 면적 완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감차 보상금 현실화와 세제 혜택, 관광진흥기금 우선 지원 등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으로 감차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둘째, 신규 진입을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서비스 평가를 통해 불만족 사례나 사고율이 높은 업체의 등록 대수를 축소하는 ‘질적 감차’ 제도를 마련해 건전한 경쟁과 자연스러운 도태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내연기관 차량을 줄이고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업체에 혜택을 부여해 제주도의 ‘탄소 없는 섬(CFI 2030)’ 비전 실현과 수급 조절을 동시에 이뤄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관광객이 렌터카 없이도 대중교통이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모빌리티(MaaS)’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제주의 제한된 교통 수용력을 감안할 때 렌터카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총량제 유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진입 장벽만 높인 채 ‘현상 유지’에 머문다면 이 제도는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렌터카 총량제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제주 관광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마스터키’로 거듭나야 한다.

사설

제주 현안 해결 약속 민주당 반드시 지켜야

제주도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내년도 국비 1975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또 한국마사회 제주이전, G20 정상회의 제주유치, 4·3특별법 조속 개정 등 주요 제주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도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가 화답함에 따라 향후 이행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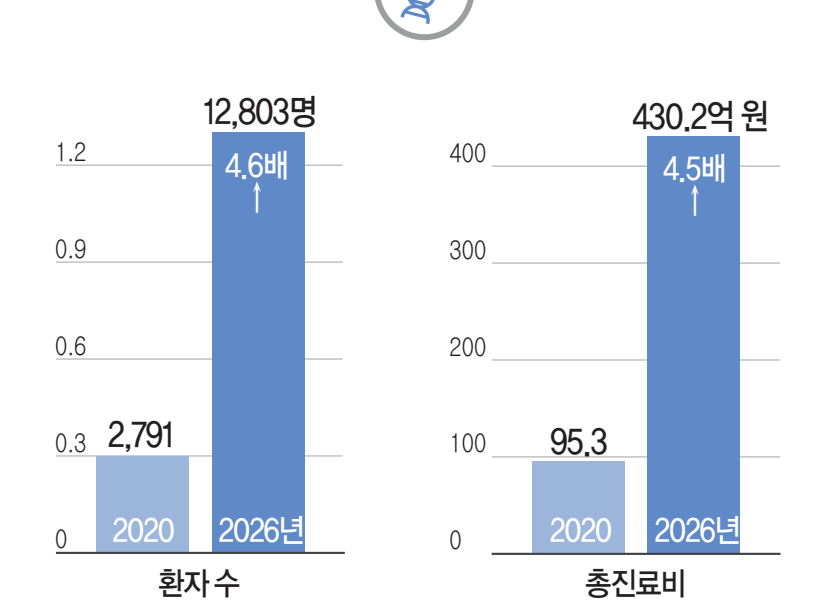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과 ‘2026년 제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제주도가 건의한 국비 지원 사업은 10개로 1975억원이다.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제주형 자율주행 실증도시 구축으로 1683억원이다. 제주도는 축적된 실증 경험과 다양한 주행환경을 바탕으로 제주를 국가 자율주행 실증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제주권 디지털 전환 사업비를 비롯해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도심항공교통

지역 시범사업, 위케이션 허브 센터 유치, 제22회 제주포럼 개최 지원, 항공좌석 공급 확대 방안 연구비 등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현안도 함께 건의했다. 추자 해상풍력의 국가전력망 연결과 도민 항공 이동권 보장, 제주신항 국가관리항 전환,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이전, 2028년 G20정상회의 유치 등이다.

제주도의 국비 반영과 지역현안 해결 건의에 민주당 지도부는 화답했다. 제주 현안 해결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시·도 의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조정해야 하기에 제주도의 요구가 전부 반영되지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 등 핵심 건의사항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그래픽 뉴스

극히귀질환 진료 현황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연합뉴스

열린마당

AI 시대, 시각장애인은 준비돼 있는가?



김 선 희
제주도 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장

인공지능(AI)은 정보를 찾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사진과 주변 상황을 설명하고, 문서를 읽고 요약하며, 필요한 정보를 음성으로 질문할 수 있는 AI는 시각장애인에게 정보접근과 자립의 범위를 넓힐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AI 활용에 필요한 교육체계와 사회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

주디지털훈련센터와 협력해 진행한 AI 활용교육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첫 AI 교육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장애 특성과 디지털 활용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 결과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 과정이 거듭되면서 ‘시각장애인 당사자 AI 강사’ 양성이라는 가능성도 확인됐다. 화면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과 AI를 사용하는 방법과 어려움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아는 만큼 전문 강사로 양성한다면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AI 교육과 함께 사회 인프라 차원의 접근성도 중요하다. 배움 기회를 넓히고 새로운 AI 서비스에 처음부터 접근성을 담는 것,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AI 제주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 위협하는 미승인 드론 강력 대처를

지난 6월 미국 JFK공항에서 여객기가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와 충돌했다. 여객기는 900m 상공에서 활주도로 접근하는 중이었다. 다행히 여객기는 안정적으로 착륙했고, 승객들도 무사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항공기와 충돌한 물체가 실제 드론인지 조사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찔한 상황이 종종 빚어진다. 지난 8월엔 제주공항 주변에 미승인 드론이 나타나는 바람에 약 35분간 항공기가 지연 운행됐다. 지난달 2일엔 제주공항에서 약 3km 떨어진 지점에서 미확인 드론이 갑자기 7분간 이착륙이 금지됐다. 제주공항 주변에서 확인된 미승인 드론은 올해 들어서만 115건에 이른다.

미승인 드론은 안보를 위협하기도 한다. 지난 8월 4일 독일 라이프치히-할레 공항 인근에서

미확인 드론이 발견되면서, 공항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 남쪽 활주로 인근에서는 특정 물체가 발견돼 연방 경찰이 긴급 출동했다. 해당 물체에는 폭발물·기폭장치와 장착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제주에선 드론으로 제주공항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붙잡히기도 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미승인 드론을 엄벌한다. 중국은 베이징에서 드론 비행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최대 7만5000달러(약 1억원)까지 벌금을 물린다. 영국은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하고 있다.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우리와는 차이가 크다. 보다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탐지·재방 등 기술 개발과 함께 불법 드론 자체·신고 등에 대한 홍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장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산담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평인
2009 백도라지 평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예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